영어어문교육 *제30권* 3호 2024 가을
https://doi.org/10.35828/etak.2024.30.3.87

중학생과 대학생 예비영어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비교

임정완
(대구대학교)

Lim, Jeongwan. (2024). A comparative study of digital literacy competencie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pre-servic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30*(3), 87-107.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gital literacy competencies and utilization abilities in teaching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pre-service English teacher groups, and to analyze the factors necessary for enhancing digital literacy competencies. Targeting a total of 232 participants from the Gyeongbuk region, this study presents its findings based on an analysis of survey responses. The collected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6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following: Firstly, in terms of social competencies, middle school students demonstrate lower levels of digital literacy competencies compared to university pre-service English teachers. Secondl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several items among the five components of digital literacy competencies for both middle school and university pre-service English teachers (affective factors, utilization of digital learning strategies, social competencies, awareness of digital ethics, and ICT utilization competencies). Thirdly, correlations among the five components of digital literacy competencie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with strong correlations between social competencies and the utilization of learning strategies, while relatively weaker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ocial competencies and awareness of digital ethics. Th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ractice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are discussed.

[digital literacy/middle school students/perception/competency/pre-service teachers of English, 디지털 리터러시/중학생/인식/역량/예비영어교사]

I. 서론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기본 소양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21세기에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의 생성과 유통이 디지털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또한,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데, 온라인 학습과 디지털 교육 자원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필수적이 되었다.

경제 활동 역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직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원격 근무 등의 새로운 경제 활동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참여 측면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더 쉽게 의견을 표현하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리터러시는 안전하게 인터넷을 활용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이고 안전한 삶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 접근, 의사소통, 학습, 경제 활동, 사회적 참여, 보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및 산업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도 협의적 관점인 ICT 소양을 넘어 컴퓨팅 사고력을 아우르는 광의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융합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확산되면서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또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지속되면서 온라인 수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따라서 수업에서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교사는 전공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능숙하게 운영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스스로 함양하고 자신의 수업에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중·고등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할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영어과 예비교사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수업에의

활용 능력을 중학교 학생 집단과 비교하여 수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과 예비영어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과 예비영어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세부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과 예비영어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서 영역별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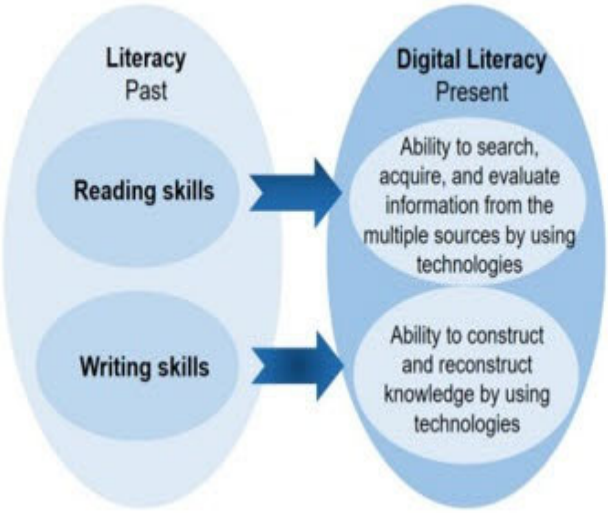
II. 선행 연구

1.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리터러시(literacy)는 우리말로 옮기면 '문해력'이다. 문해력의 정의는 '주어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은 이를 정보화 기기를 다루는 능력 정도로 이해할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Gilster(1997)가 처음 사용한 학술용어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식 활동을 가리킨다. 리터러시가 Reading skills와 Writing skills만을 포함한 문해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문해능력을 의미한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Rychen & Salganik, 2003), OECD(2015) 등은 미래 사회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꼽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까지 이어져 왔던 문해력의 의미가 시대에 맞게 변화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정보화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역량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미국도서관협회 (ALA)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에 더해 인지적, 기술적, 윤리적 면모가 모두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정의를 내렸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각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네트워크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와 같은 다양한 용어(Pegrum 외, 2022)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람들이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해당 정보가 유용한지 판단하며, 해당 정보의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인 범위까지 포함한다(김민정 외, 2023). 이러한 리터러시 개념의 변화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언어학습에서 리터러시 개념의 변화



출처: Kim, H. (2021). Digital learning-Change of education ecology system. In J. Kim, Y. Kim, H. Kim, H. Kim, K. Ma, H. Park, & M. Lee (Eds.). *Live in the digital age* (pp, 151-182). Korea Academic Information.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와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와 같은 의문점을 지닌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였고, 국내·외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다(British Columbia, 2022). 우리나라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23)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속해서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를 실시했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한국 학생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지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했다는 특징이 있다. 부산교육지원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일부 학교들을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교육학교로 지정하고 운영하였다. 북미의 ETS에서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리고 교사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를 개발해 왔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교육에 적용하려는 예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부가 최근 개정한 2022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란, '가장 널리 통용되는 수단인 영어로 제시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적 산물을 향유하며, 제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영어 사용 공동체 참여자들과 협력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된다(교육부, 2022).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강조하는 '소통'에 적합한 형태로

대응하기 위해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체의 발달과 기술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 소통 수단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혹은 비대면 원격회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소통에서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된 점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구분이 희미해졌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듣기'와 '읽기'에 더해 시청각 이미지가 결합한 '보기(viewing)' 그리고 '말하기'와 '쓰기'에서 나아가서 본인의 생각이나 의사를 발표하는 '제시하기(presenting)'가 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교육부, 2022).

이러한 변화는 영어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의사소통 기반의 영어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화하였으며, 동시에 사회적 목적 관점에 따라 '이해(reception)'와 '표현(production)' 영역 설정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해' 영역에서는 담화와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영어 지식 정보를 처리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 영역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말, 글, 시청각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 생각, 의견 등을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듯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는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소통 역량과 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의 조화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역량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점이 존재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는 것은 오늘날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영어 의사소통 역량 및 영역 구성



출처: 교육부. (2022).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22-33호 [별책 14 p.4].

따라서, 교사는 학생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풍부하고 유의미한

학습 환경 조성과 환경 자료 제공을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학생도 영어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2. 선행연구

본래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하는 '리터러시'는 '컴퓨터 리터러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사용되며 그 외연을 확대해 왔다. 그 가운데 디지털 시대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 기기 사용 능숙도와 관심"은 "팬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김은정, 2021, p. 364)이기도 하여, 현재 다양한 교과에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수업을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에 널리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서수현(2022)은 국어과 쓰기 교육과정 확장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호주, 핀란드, 싱가포르의 자국어 교육과정과 2022 국어과 개정교육과정 개발 기초연구의 성과를 고찰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효용성을 탐색한 바 있다.

중등 영어과의 경우, '클래스 카드' 활용에 대한 조형숙(2022)의 논문처럼 개별 에듀테크와 관련된 연구들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022년 7월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영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본 연구가 참고할 만한 논문은 김지은(2022), 김은정(2021), 김혜영(2021), 하명애(2023), Lee(2020)의 연구 정도 뿐이며, 이들의 연구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진단과 고찰이라 예비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김미경(2021), 김은진(2020), Dag와 Levent(2017)의 연구에서는 창의융합형 중등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영어 교육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창희(2023)는 고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조사 연구를 하였는데,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의 연계로서 리터러시 역량 조사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 본래 영어에 대한 '리터러시'를 기초소양으로 하며 나아가 동시대의 글로벌 경향과 성과를 가장 빨리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교과임을 고려할 때 영어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여러모로 연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상북도에 있는 A 중학교 학생들 121명과 B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는 남자중학교여서 중학생들은 전원 남학생이었고, 1, 2학년 생들이었으며, 대학생은 사범대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남학생(29명)보다는 여학생(82명)이 더 많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걸쳐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학년도는 전면 비대면 수업을 수강한 상태였고, 2021학년도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상황으로 전원 온라인 수업에 익숙한 상태이다. 학년별 분포는 중학교 1학년 60명(25.9%), 2학년 61명(26.7%), 대학교 1학년 56명(24.1%), 2학년 16명(6.5%), 3학년 26명(11.2%), 4학년 13명(5.6%)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글 설문지(Google Forms)를 사용하여 중학생과 사범대학에 재학중인 영어전공 대학생인 예비영어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수업에의 적용 능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하명애, 2023)를 참고하여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5개 영역(정의적 영역/학습 전략 활용 역량/사회적 역량/디지털 윤리인식 역량/기술적 ICT 활용 역량)으로 이루어졌다. 영역별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까지 5개의 등급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영역별 문항 내용 및 문항들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56 ~ .886에 걸쳐 있으며, 전체 32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70으로 높게 나타나 문항들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다음 표 1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영역별 내용 및 문항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영역별 내용 및 문항 신뢰도

영역	문항 내용	문항수	Cronbach's alpha
정의적 영역	디지털 환경의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흥미 및 태도	8	.881
학습 전략 활용 역량	영어 학습을 위해 디지털 기기와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역량	8	.868
사회적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량	6	.860

디지털 윤리 인식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점검 및 지적 재산권 존중 등 디지털 윤리와 규범을 준수하는 역량	5	.856
기술적 ICT 활용 역량	디지털 환경을 활용하여 영어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ICT 활용 역량	5	.886
전체		32	.870

3.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하명애, 2023)를 참고하여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5개 영역(정의적 영역/학습 전략 활용 역량/사회적 역량/디지털 윤리 인식 역량/기술적 ICT 활용 역량)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고 있으며, 설문 배포는 구글폼을 이용하여 2023년 12월 중순 무렵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 수거된 설문지는 Excel과 SPSS 통계 프로그램 26을 활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및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중학생과 대학생 예비영어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영역별 순위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전체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과 대학생 영어예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을 다섯 가지 영역별 역량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3과 같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 집단은 전체 응답 평균이 3.08로 조사되어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응답 순위는 디지털 윤리인식(M = 3.44)> ICT 활용 역량(M = 3.22)> 정의적 영역(M = 3.10)> 학습전략 활용 역량(M = 2.96)> 사회적 역량(M = 2.69) 순으로 디지털 윤리의식이 가장 높은 역량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중학생 집단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영역별 결과 (N = 121)

역량 영역	*M*	*SD*	응답평균순위
정의적 영역	3.10	.796	3위
학습전략 활용 역량	2.96	.885	4위
사회적 역량	2.69	.928	5위
디지털 윤리 의식	3.44	.864	1위

ICT 활용 역량	3.22	.874	2위
전체	3.08	.869	

한편, 대학생 집단은 전체 응답 평균이 3.63으로 조사되어 보통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영역별 순위는 디지털 윤리인식(M = 3.91)> ICT 활용 역량(M=3.70)> 학습전략 활용 역량(M=3.59)> 정의적 영역(M=3.58)> 사회적 역량(M=3.39) 순이었다. 중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대학생 집단도 디지털 윤리인식과 ICT 활용 역량이 각각 1위와 2위로 집계되어 두 집단 모두 5가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영역에서 디지털 윤리인식과 ICT 활용 역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학습전략 활용 역량(M = 3.59)과 정의적 영역 역량(M = 3.58)은 거의 비슷한 평균을 보여 중학생 집단 보다는 그 순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대학생 집단 또한 사회적 역량(M = 3.39)이 다른 역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고,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대학생 집단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영역별 결과 (N=111)

역량 영역	*M*	*SD*	응답평균순위
정의적 영역	3.58	.640	4위
학습전략 활용 역량	3.59	.630	3위
사회적 역량	3.39	.775	5위
디지털 윤리 의식	3.91	.805	1위
ICT 활용 역량	3.70	.891	2위
전체	3.63	.748	

두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5개의 영역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전체적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대학생 집단(M = 3.63)이 중학생 집단(M = 3.08)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5개 영역의 역량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평균은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집단 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비교

역량 영역	집단	*N*	*M*	*SD*	*t*	*p*
정의적 영역	중학생	121	3.10	.796	-5.005	.000*
	대학생	111	3.58	.640		
학습전략 활용 역량	중학생	121	2.96	.885	-4.967	.000*
	대학생	111	3.59	.630		
사회적 역량	중학생	121	2.69	.928	-4.564	.000*

	대학생	111	3.39	.775		
디지털 윤리 의식	중학생	121	3.44	.864	-4.582	.000*
	대학생	111	3.91	.805		
ICT 활용 역량	중학생	121	3.22	.874	-4.564	.000*
	대학생	111	3.70	.891		

*$p < .001$

2.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집단 별 세부 영역 비교

위의 표 4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5가지 영역에서는 집단 별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여주었고, 각 영역의 세부 항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의적 영역

디지털 기반 환경에서 중학생과 대학생 예비영어교사의 관심, 흥미, 그리고 태도를 포함하는 정의적 영역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대학생 집단의 응답 평균이 중학생 집단보다 모두 높았으며,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영어공부에 관심이 있다(중학생 $M = 3.18$, 대학생 $M = 3.83$)', '디지털 기반의 영어공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중학생 $M = 3.53$, 대학생 $M = 3.89$)', '디지털 기반의 영어공부가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한다(중학생 $M = 3.42$, 대학생 $M = 3.83$)', '영어학습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방송을 인터넷으로 자주 본다(중학생 $M = 2.61$, 대학생 $M = 3.26$)', '영어학습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자주 검색한다(중학생 $M = 3.02$, 대학생 $M = 3.71$)', '영어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나 블로그를 인터넷에서 자주 찾아본다(중학생 $M = 2.80$, 대학생 $M = 3.59$)'가 해당되었다. 대학생 집단은 중학생 집단 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영어공부에 관심이 더 많으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영어학습을 위해 인터넷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은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로 읽는 것이 더 좋다(중학생 $M = 3.08$, 대학생 $M = 3.20$)',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을 하면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다(중학생 $M = 3.18$, 대학생 $M = 3.23$)'에서 두 집단의 응답이 큰 차이가 없이 두 집단 모두 디지털 기기로 영어학습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집단 간 분석

정의적 영역	집단	*N*	*M*	*SD*	*t*	*p*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영어공부에 관심이 있다.	중학생	121	3.18	1.072	-5.302	.000*
	대학생	111	3.83	.773		
디지털 기반의 영어공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중학생	121	3.53	.886	-3.334	.001*
	대학생	111	3.89	.767		
디지털 기반의 영어공부가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중학생	121	3.42	.964	-4.328	.000*
	대학생	111	3.83	.817		
영어학습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방송을 인터넷으로 자주 본다.	중학생	121	2.61	1.075	-4.778	.000*
	대학생	111	3.26	.988		
영어학습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자주 검색한다.	중학생	121	3.02	1.155	-4.737	.000*
	대학생	111	3.71	1.074		
영어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나 블로그를 인터넷에서 자주 찾아본다.	중학생	121	2.80	1.202	-5.429	.000*
	대학생	111	3.59	1.003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로 읽는 것이 더 좋다.	중학생	121	3.08	.988	-.827	.409
	대학생	111	3.20	1.127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영어학습을 하면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중학생	121	3.18	.966	-.410	.682
	대학생	111	3.23	.981		

*$p < .001$

2) 디지털 학습전략 활용 역량

디지털 기반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전략 활용 역량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대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 보다 평균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문항은 '영어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앱, 오디오, 비디오파일 등으로 연습한다(중학생 $M = 2.75$, 대학생 $M = 3.33$)', '영어 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을 디지털 기기로 듣고 똑같이 따라서 연습한다(중학생 $M = 2.98$, 대학생 $M = 3.61$)', '모르는 영어단어는 온라인 사전이나 검색 엔진 등을 사용하여 확인한다(중학생 $M = 3.54$, 대학생 $M = 4.50$)',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저장(링크)해 둔다(중학생 $M = 2.83$, 대학생 $M = 3.70$)'였다. 이는 성인 학습자인 대학생 집단이 아직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집단보다 스스로 검색하고 학습 및 정리하는 자기 관리 역량이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문항은 '영어 학습을 위해 규칙적으로 애용하는 어플(앱)이나 사이트가 있다(중학생 $M = 2.97$, 대학생 $M = 3.21$)', '온라인으로 학습한 영어단어는 즐겨찾기 등으로 단어목록을 저장한다(중학생 $M = 2.81$, 대학생 $M = 3.06$)', '영어 학습을 위해 디지털 기기의 자동 재생

기능을 이용하여 반복 연습한다(중학생 $M = 2.84$, 대학생 $M = 3.01$)', '영어 학습을 위해 노트 필기보다 디지털 기기에 저장하는 것을 선호한다(중학생 $M = 3.02$, 대학생 $M = 3.29$)'로 두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의적 영역에서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로 읽는 것이 더 좋다' 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을 하면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다'에서 두 집단이 유사하게 낮은 응답을 보여준 것처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전략 활용 역량 중에서 낮은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표 6
디지털 리터러시의 학습전략 활용 역량에 대한 집단 간 분석

학습전략 활용 역량	집단	*N*	*M*	*SD*	*t*	*p*
영어 학습을 위해 내가 규칙적으로 애용하는 어플(앱)이나 사이트가 있다.	중학생	121	2.97	1.211	-1.564	.119
	대학생	111	3.21	1.121		
영어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앱, 오디오, 비디오파일 등으로 연습한다.	중학생	121	2.75	1.135	-3.971	.000*
	대학생	111	3.33	1.120		
영어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을 디지털 기기로 듣고 똑같이 따라서 연습한다.	중학생	121	2.98	1.097	-4.677	.000*
	대학생	111	3.74	.954		
모르는 영어단어는 온라인 사전이나 검색 엔진 등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중학생	121	3.53	1.202	-7.633	.000*
	대학생	111	4.58	.626		
온라인으로 학습한 영어단어는 즐겨찾기 등으로 단어목록을 저장한다.	중학생	121	2.81	1.083	-1.742	.083
	대학생	111	3.12	1.096		
영어 학습을 위해 디지털 기기의 자동 재생 기능을 이용하여 반복 연습한다.	중학생	121	2.84	1.100	-1.143	.254
	대학생	111	3.07	1.142		
영어 학습을 위해 노트 필기보다 디지털 기기에 저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중학생	121	3.02	1.053	-1.835	.068
	대학생	111	3.42	1.200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저장(링크)해 둔다.	중학생	121	2.83	1.118	-6.147	.000*
	대학생	111	3.93	1.009		

*$p < .001$

3) 사회적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역량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주요한 요소이다 (Kim, 2021).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구성하는 영역별 역량 가운데 중학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낮은 응답 평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영어 학습을 위해 외국인들과 채팅, 이메

일, SNS 등을 영어로 주고받는다(중학생 $M = 2.43$, 대학생 $M = 2.89$)', '영어 학습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공부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본다(중학생 $M = 2.98$, 대학생 $M = 3.65$)',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려고 한다(중학생 $M = 2.90$, 대학생 $M = 3.74$)'와 '영어 학습을 위해 온라인 체크리스트나 스케쥴 앱 등을 활용한 적이 있다(중학생 $M = 2.67$, 대학생 $M = 3.23$)'가 해당된다.

반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문항은 '영어 학습 관련의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질문이나 댓글을 남긴 적이 있다(중학생 $M = 2.55$, 대학생 $M = 2.80$)'와 '영어 학습에 관한 생각 등을 온라인상에 기록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한다(중학생 $M = 2.64$, 대학생 $M = 2.77$)' 로서 두 집단 모두 평균 3.0 이하로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생 학습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우려는 관심과 온라인상의 앱을 활용하는 것을 중학생 집단보다 더 많이 보이지만, 영어 학습에 관한 생각 등을 온라인상에 기록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는 데는 두 집단 모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7
디지털 리터러시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집단 분석

사회적 역량	집단	*N*	*M*	*SD*	*t*	*p*
영어 학습을 위해 외국인들과 채팅, 이메일, SNS 등을 영어로 주고 받는다.	중학생	121	2.43	1.196	-2.782	.006*
	대학생	111	2.89	1.324		
영어 학습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공부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본다.	중학생	121	2.98	1.110	-4.731	.000**
	대학생	111	3.65	1.024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려고 한다.	중학생	121	2.90	1.091	-6.291	.000**
	대학생	111	3.74	0.922		
영어 학습 관련의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질문이나 댓글을 남긴 적이 있다.	중학생	121	2.55	1.110	-1.617	.107
	대학생	111	2.80	1.227		
영어 학습을 위해 온라인 체크리스트나 스케쥴 앱 등을 활용한 적이 있다.	중학생	121	2.67	1.060	-3.692	.000**
	대학생	111	3.23	1.219		
영어 학습에 관한 생각 등을 온라인상에 기록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한다.	중학생	121	2.64	1.079	-.816	.415
	대학생	111	2.77	1.183		

*$p < .01$ **$p < .001$

4) 디지털 윤리인식

디지털 윤리인식은 디지털 기술 활용이나 정보처리 능력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

야 할 윤리와 규범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디지털 윤리인식은 두 집단의 응답 평균이 3.11에서 4.30에 걸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준다. 디지털 윤리인식에 대한 연구대상자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모든 문항에 있어 두 집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인터넷상의 영어 학습 사이트가 믿을 만한지 확인해 본다(중학생 $M = 3.11$, 대학생 $M = 3.74$', '인터넷에서 얻은 영어 학습 경로에 대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중학생 $M = 3.60$, 대학생 $M = 4.30$)', '인터넷에서 얻은 영어 학습 정보를 인용할 때는 꼭 출처를 밝힌다(중학생 $M = 3.60$, 대학생 $M = 4.30$)'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대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저작권에 대해 민감한 대학 공동체의 준수 요구를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 집단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그 외 '인터넷에 있는 영어 학습 정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중학생 $M = 3.83$, 대학생 $M = 4.12$)'와 '인터넷상의 영어 학습 정보가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중학생 $M = 3.20$, 대학생 $M = 3.67$)'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두 집단 모두 무단 도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인식과 자기 평가 인식이 높았고, 특히 대학생 집단이 중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표 8
디지털 윤리인식 역량에 대한 집단 간 분석

디지털 윤리인식 역량	집단	*N*	*M*	*SD*	*t*	*p*
인터넷상의 영어 학습 사이트가 믿을 만한지 확인해 본다.	중학생	121	3.11	1.102	-3.658	.000**
	대학생	111	3.74	.928		
인터넷상의 영어 학습 정보가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중학생	121	3.20	1.054	-3.058	.002*
	대학생	111	3.67	.865		
인터넷에서 얻은 영어 학습 경로에 대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중학생	121	3.51	1.045	-4.728	.000**
	대학생	111	4.14	.833		
인터넷에 있는 영어 학습 정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중학생	121	3.83	1.062	-2.227	.027*
	대학생	111	4.12	.793		
인터넷에서 얻은 영어 학습 정보를 인용할 때는 꼭 출처를 밝힌다.	중학생	121	3.60	1.107	-4.496	.000**
	대학생	111	4.30	.638		

*$p < .05$ **$p < .001$

5) ICT 활용 역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 생산하는 ICT 활용 역량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

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기본적인 구성 요인이다. 두 집단의 ICT 활용 역량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두 집단의 응답 평균이 대체로 3.13에서 4.04로 분포하고 있어 ICT 활용 역량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영어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 콘텐츠 제작이나 클라우드 활용 면에서는 중학생 집단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다.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중학생 M = 3.13, 대학생 M = 3.40)'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두 집단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특히 '나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영어 학습 정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중학생 M = 3.37, 대학생 M = 4.12)', '나는 인터넷을 통해 영어 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중학생 M = 3.35, 대학생 M = 4.16)', '영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 콘텐츠(동영상 등)를 제작할 수 있다(중학생 M = 2.93, 대학생 M = 3.50)'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중학생보다는 대학생 집단이 온라인 검색이나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역량은 더 많았지만 온라인상에서 제작이나 작업 수행과 같은 생산적인 역량은 여전히 검색과 같은 수용적 역량보다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기술적 ICT 활용 역량에 대한 집단 간 분석

기술적 ICT 활용 역량	집단	*N*	*M*	*SD*	*t*	*p*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영어 학습 정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중학생	121	3.38	1.019	-5.092	.000**
	대학생	111	3.99	.803		
인터넷을 통해 영어 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중학생	121	3.35	.990	-5.688	.000**
	대학생	111	4.04	.830		
인터넷에서 수집한 영어 학습 정보가 유익한지 가려낼 수 있다.	중학생	121	3.32	.985	-2.403	.017*
	대학생	111	3.62	.905		
영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 콘텐츠(동영상 등)를 제작할 수 있다.	중학생	121	2.93	1.078	-3.955	.000**
	대학생	111	3.50	1.119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중학생	121	3.13	1.000	-1.836	.054
	대학생	111	3.40	1.073		

*p < .05 **p < .001

3.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구성 요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

중학생과 대학생 예비영어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영역별 응답 평균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중학생 집단은 디지털 윤리인식> ICT 활용 역량 > 정의적 영역> 학습전략 활용 역량> 사회적 역량 순이었으며, 대학생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영역별 순위는 디지털 윤리인식> ICT 활용 역량 > 학

습 전략 활용 역량 > 정의적 영역 > 사회적 역량 순으로 두 집단 모두 디지털 윤리인식과 ICT 활용 역량이 가장 높은 반면에 사회적 역량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본 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영역별 구성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영역별 구성요인 상관 관계

	정의적 영역	학습전략 활용 역량	사회적 역량	디지털 윤리인식	ICT 활용 역량
정의적 영역	1				
학습전략 활용 역량	.748**	1			
사회적 역량	.666**	.783**	1		
디지털 윤리인식	.567**	.568**	.495**	1	
ICT 활용 역량	.662**	.679**	.654**	.703**	1

**$p < .01$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영역별 구성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위 표 10에서 보듯이 학습전략 활용 역량과 사회적 역량 요인 간에는 가장 강한 상관관계($r = .78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전략 활용 역량과 정의적 영역 간($r = .748$)에 두 번째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디지털 환경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일수록 디지털 기반 학습전략을 활발하게 사용하며, 사회적 역량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하명애(202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순으로는 ICT 활용 역량과 디지털 윤리인식 역량 간($r = .703$), 그리고 ICT 활용 역량과 정의적 영역 간($r = .662$)이 조사되었다.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학습전략 활용 역량과 디지털 윤리인식($r = .568$), 정의적 영역과 디지털 윤리인식 간($r = .567$)이었다. 상관관계가 .5 미만으로 나타난 요인으로는 사회적 역량과 디지털 윤리인식 간($r = .495$)으로 조사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중학생과 대학생 영어예비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수업에의 적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미래 영어교사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구성하는 영역별 역량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의적, 사회적, 기술적 영역을 비롯하여 디

지털 학습전략 활용 및 디지털 윤리인식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경북에 있는 한 사립중학교와 한 4년제 사립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121명의 중학생과 11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양적 연구 방법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과 예비영어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영역별 순위는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순위는 디지털 윤리인식> ICT 활용 역량> 정의적 영역> 학습전략 활용 역량> 사회적 역량 순이었으며, 대학생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영역별 순위는 디지털 윤리인식 역량> ICT 활용 역량> 학습 전략 활용 역량> 정의적 영역> 사회적 역량 순으로 두 집단에서 모두 '디지털 윤리인식'과 'ICT 활용 역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역량'의 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대학생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중학생 집단 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고, 이는 성인으로서 대학생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자기 주도성이 있는 행동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집단별 세부 영역 비교에서는 5가지 영역에서 모두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대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높은 평균 응답을 보였으며, 특히 통계적인 차이는 '디지털 윤리 인식 역량'과 '기술적 ICT 활용 역량'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온라인 검색이나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지만 온라인상에서 제작이나 작업 수행과 같은 생산적인 역량은 여전히 검색과 같은 수용적 역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적 영역'과 '학습 전략 활용 역량' 에서도 대학생 집단이 디지털 기기로 영어학습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온라인 사전이나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학생 집단 보다 훨씬 더 높은 응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량'은 가장 낮는 응답을 보이는 영역으로서 대학생 집단이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우려는 관심과 온라인상의 앱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응답을 이었으나, 영어 학습에 관한 생각 등을 온라인상에 기록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는 데는 두 집단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구성 요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가장 강한 상관관계는 학습전략 활용 역량과 사회적 역량 요인 간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는 사회적 역량과 디지털 윤리인식으로 이는 선행연구(안정임, 2013; 하명애, 2023)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 현장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5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조사에서 가장 낮은 응답으로 조사

된 ‘사회적 역량’의 증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은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소통과 협력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역량’이 가장 낮다는 것은 현 시대의 교육 방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은 과학기술과 역량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김은정, 2021). 따라서 영어 학습자들의 ‘사회적 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현장에서 고민하고 교과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에 참여한 두 집단의 학생 수가 232명에 불과하여 대학생 집단 학생 수가 중학생 집단 학생 수보다 적은 수여서 두 집단의 참여 학생 수 비율을 맞추질 못 하였고, 중학생 집단은 남학생들로만 구성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범대 수업의 특성상 참여 학생의 수가 적었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후 더 많은 대학생 참여자를 포함하고, 중학생 여학생들도 포함시켜 좀 더 균형된 조사 대상을 토대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영어 능숙도와 디지털 활용 능력 간의 상관관계도 포함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면 더욱 풍성한 연구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2).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2022-33호 [별책 14].

김미경. (2021). 중등영어 예비교사의 프로젝트 기반 문화교육 운영사례. *교과교육학연구, 25*(6), 452-460. https://doi.org/10.24231/rici.2021.25.6.452

김민정, 윤유라, 이은주. (2023).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 및 검증 연구. *연구방법논총, 8*(2), 121-144. https://doi.org/10.21487/jrm.2023.8.8.2.121

김은정. (2021).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의 중등영어교육 현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언어과학연구, 99,* 351-368. https://doi.org/10.21296/jls.2021.12.99.351

김은진. (2020). 창의·융합형 중등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수업 혁신 요소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에서 중등예비교사의 성찰일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20*(3), 481-490. https://doi.org/10.5392/JKCA.2020.20.03.481

김지은. (2022). 영어교육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테크놀로지 활용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영어어문교육, 28*(1), 107-121. https://doi.org/10.35828/etak.2022.28.1.107

김혜영. (2021).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을 위한 방향과 과제. *영어교육, 76*(특별), 87-105. https://doi.org/10.15858/engtea.76.s1.202109.87

서수현. (2022). 쓰기 교육과정의 확장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방안. *작문연구, 52*, 45-77. http://doi-org.libproxy.daegu.ac.kr/10.31565/korrow.2022..52.002

안정임. (2013). 연령 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비교 연구. *학습과학연구, 7*(1), 1-21.

이창희. (2023). 고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조사 연구 —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과 효능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8*(3), 20-35. https://doi.org/10.20880/kler.2023.58.3.101

조형숙. (2022). 영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비교사의 교수역량 배양에 관한 사례연구: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발전, 42*(1), 145-168. https://doi.org/10.34245/jed.42.1.145

하명애. (2023). 대학생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탐색. *영어교과교육, 23*(1), 285-308. https://doi.org/10.18649/jkees.2023.22.1.28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2023 디지털교육백서*. 내일날씨.

British Columbia. (2022, April 1). “Digital literacy.”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k-12/teach/resources-for-teachers/digital-literacy

Dag, F., & Levent, D. (2017). Pre-Service teachers’ experiences and views on project-based learning processes.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10*(7), 18-39.

Gilster, P. (1997). *Digital literacy*. Wiley.

Kim, H. (2021). Digital learning-Change of education ecology system. In J. Kim, Y. Kim, H. Kim, H. Kim, K. Ma, H. Park, & M. Lee. (Eds.). *Live in the digital age* (pp. 151-182). Korea Academic Information.

Lee, Y.-J. (2020). Training pre-service English teachers with ICT in English education: How will it affect their perceptions? *Studies in Humanities, 67,* 155-183. https://doi.org/10.33252/sih.2020.12.67.155

OECD. (2015). *Students, computers and learning: Making the connection.* France.

Pegrum, M., Hockley, N., & Dudeney, G. (2022). *Digital literacies.*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 April 21-25).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Paper presentation].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IL

부 록
디지털 리터러시 영어교육 역량 설문지

성별: 남, 여
나이: _____
학년: 중학생, 대학생
영어실력 정도: 상, 중, 하

해당 사항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하는 곳에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 나는 디저털 기기를 활용한 영어공부에 관심이 있다.
2. 나는 디지털 기반의 영어공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디지털 기반의 영어공부가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영어 학습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방송을 인터넷으로 자주 본다.
5. 나는 영어 학습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자주 검색한다.
6. 나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나 블로그를 인터넷에서 자주 찾아본다.
7. 나는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로 읽는 것이 더 좋다.
8.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을 하면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9. 영어 학습을 위해 내가 규칙적으로 애용하는 어플(앱)이나 사이트가 있다.
10. 나는 영어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앱, 오디오, 비디오파일 등으로 연습한다.
11. 나는 영어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을 디지털 기기로 듣고 똑같이 따라서 연습한다.
12. 모르는 영어단어는 온라인 사전이나 검색 엔진 등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13. 나는 온라인으로 학습한 영어단어는 즐겨찾기 등으로 단어목록을 저장한다.
14. 영어 학습을 위해 디지털 기기의 자동재생 기능을 이용하여 반복 연습한다.
15. 영어 학습을 위해 노트 필기보다 디지털 기기에 저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16. 나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저장(링크)해 둔다.
17. 영어 학습을 위해 외국인들과 채팅, 이메일, SNS 등을 영어로 주고받는다.
18. 영어 학습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공부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본다.
19.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려고 한다.
20. 영어 학습 관련의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질문이나 댓글을 남긴 적이 있다.
21. 영어 학습을 위해 온라인 체크리스트나 스케쥴 앱 등을 활용한 적이 있다.
22. 영어 학습에 대한 생각 등을 온라인상에 기록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한다.
23. 나는 인터넷 상의 영어 학습 사이트가 믿을만한지 확인해 본다.
24. 나는 인터넷 상의 영어 학습 정보가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25. 나는 인터넷에서 얻은 영어 학습 경로에 대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26. 나는 인터넷에 있는 영어 학습 정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7. 나는 인터넷에서 얻은 영어 학습 정보를 인용할 때는 꼭 출처를 밝힌다.
28. 나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영어 학습 정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29. 나는 인터넷을 통해 영어 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30. 나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영어 학습 정보가 유익한지 가려낼 수 있다.
31. 나는 영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 콘텐츠(동영상 등)를 제작할 수 있다.
32. 나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Tertiary

임정완(교수)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Email: jwlim@daegu.ac.kr

Received: July 30, 2024
Reviewed: September 1, 2024
Revised version received: September 25, 2024